

찾아가고 싶은 인천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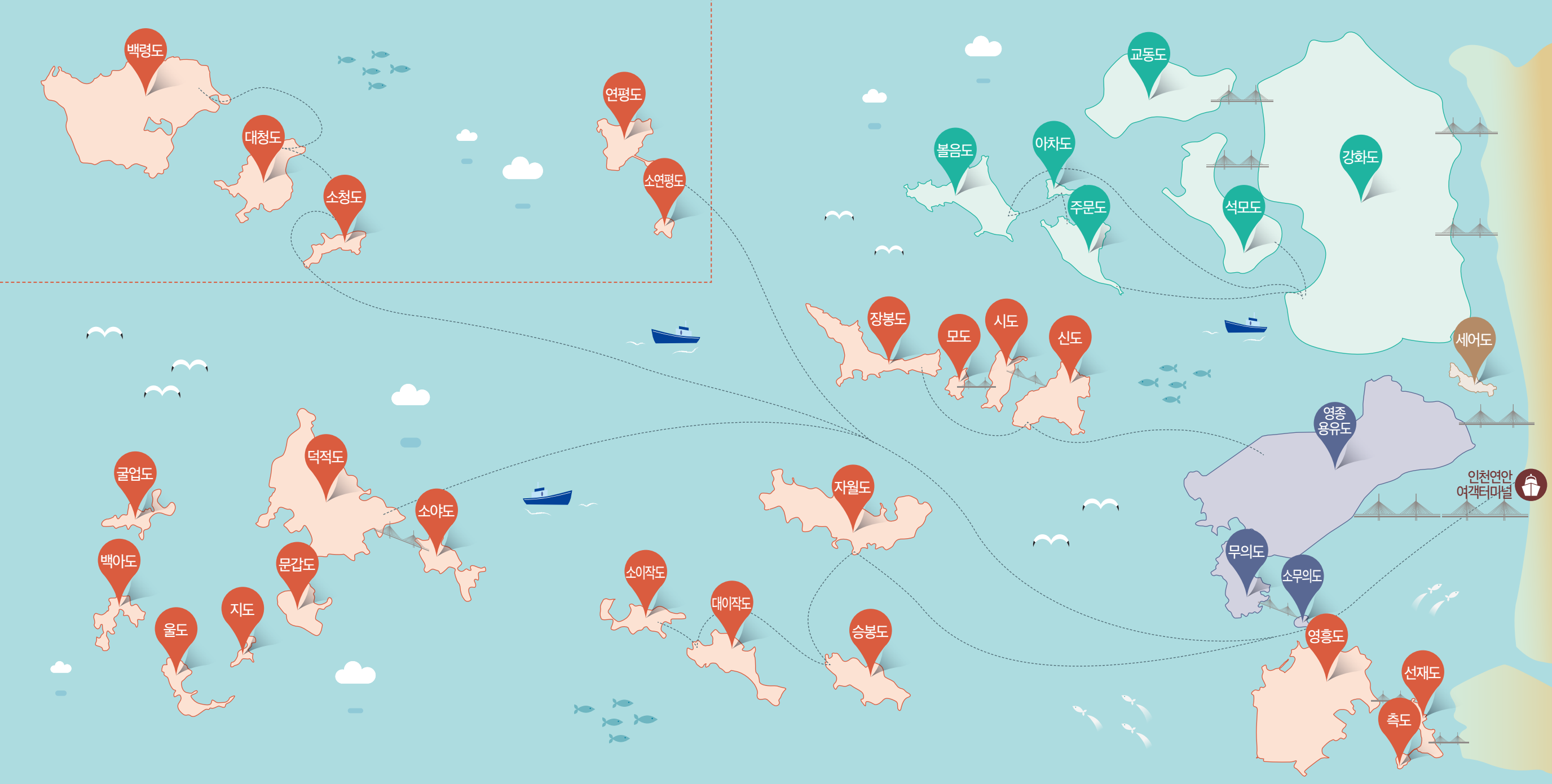
All About Incheon Island

인천 섬 알아가기
월별 추천 여행 섬

강화 웅진
중구 서구의 섬

관광안내
연락체계

인천 섬 가는 방법
섬발전지원센터 소개



CONTENTS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강화의 섬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	06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	08

접근성이 뛰어나 자주가게 되는

중구의 섬

무의도, 영종용유도	10
------------	----

섬마다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옹진의 섬

서해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12
덕적군도 (덕적도, 소야도, 굴업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14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16
신 · 시 · 모도, 장봉도	18
영흥도, 선재도, 측도	19

옛 정취와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서구의 섬

세어도	20
-----	----

인천 섬 알아가기

인천 섬 월별 추천 여행지

같은 섬이라도 계절마다 풍기는 아우라가 달라
매번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인천의 섬들!
인천 섬이 처음이라면 월별 추천 여행지에 맞춰서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인천 섬 일반현황

인천의 섬



168개

유인섬 40개
무인섬 128개

갯벌



728.3km²

전국 갯벌의
29.3%

해안선



1,077.20km

전국해안선의
7%

섬 면적



713.82km²

인천 전체 면적의
67.18%

특정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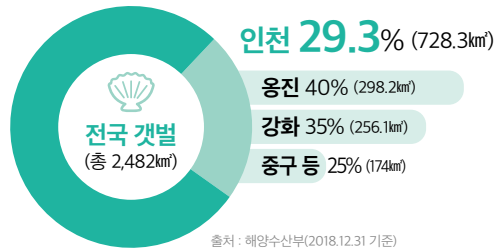


3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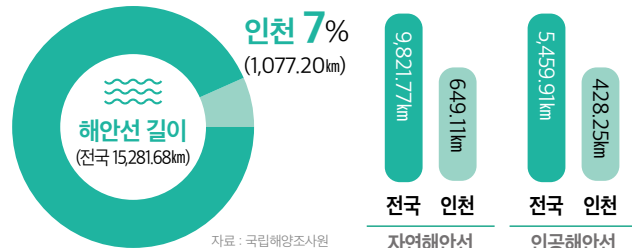
전국 특정 섬의 12.85%
강화 8개, 옹진 23개

※ 특정 섬이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섬

인천 갯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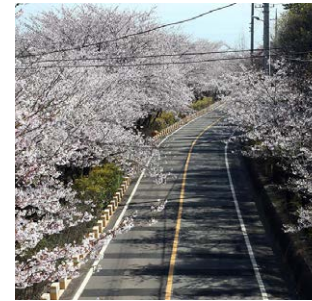


인천의 해안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
하천에 의해 침식된 육지가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해 만들어진 해안

인천의 섬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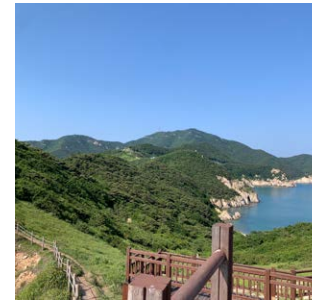
4월

- 장봉도 · 자월도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 진달래, 개나리**
- 승봉도
울창한 자생해송림에서 피톤치드향을 맡을 수 있는 힐링 여행지.
바지락이 제철인 것은 덤



5월

- 주문도
앞장술해변길 따라 **해당화**가 무리지어 피는 시기, 갯벌 속(세계 3대 갯벌인 강화갯벌/천연기념물 제419호) **상하, 백합** 채취의 손맛
- 무의도
트레킹 명소 **갯벌체험**과 **짚라인**으로 풍성한 재미를!



6월

- 대청도
섬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트레킹**이 유명한 섬. 제철 **홍어**를 맛 보고 싶다면!
- 연평도
통일의 염원이 가득 담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이북의 모습**이 선명한 시기



7월

- 덕적도 · 소야도
해수욕 / 갯바위 낚시 / 자전거 라이딩 / MTB 여름 액티비티 총집합!
- 신시모도
자전거여행, 트레킹여행 명소.
시도 수기해변 카약으로 더위를 썩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

8월

- 영흥도
서어나무 군락지가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최고의 피서지, 신비로운 **목석** 탐방은 필수코스
- 이작도
신비로운 **풀동** 관측, **갯티길** 산책, **선상낚시**의 3색 재미



9월

- 교동도
난정해바라기축제에서 인생샷! 가을철 알록달록한 **화개정원**을 둘러보고 섬 전체를 **자전거** 라이딩해보자
- 백령도
안개가 적게 끼 **두무진** 등 관광명소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기



10월

- 볼음도
가을 들녘에 가득한 **기러기와 야생오리** 관측, **은행나무**에 노란물이 드는 시기
- 굴업도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트레킹**, **은하수**를 관측하며 캠핑하기 좋은 날씨



11월

- 석모도
단풍과도 같은 붉은색으로 물드는 **칠면초 군락지**가 아름답다. **석모도미네랄 온천**으로 한해의 고됨을 썩 씻어내자
- 세어도
드넓은 **갈대밭**이 아름다운 섬, 몽환적인 분위기의 힐링섬



인천 섬 여행 적기는 봄(4월)~가을(11월)이다. 서해 여행의 묘미인 갯벌체험과 트레킹을 하며 자연으로 회귀하는 여행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날씨에 유의해 여행할 것을 추천한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은 출발 전 선사에 문의하는 것을 잊지 말자.



강화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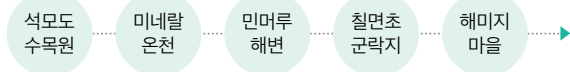
강화도, 석모도, 교동도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한국 근현대사까지 역사 현장이 잘 보존돼 있고, 바다와 산을 벗 삼아 휴식하거나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미식과 카페 여행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강화도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가 있어 3분이면 건너갈 수 있다.

석모도

석모도 추천코스

인구수 약 2,175명 면적 42.29km² 접근성 석모대교



석모도 미네랄온천

석모도 미네랄온천의 노천탕은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 서해의 수평선 너머 저물어가는 석양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사진 출처: 강화군



사진 출처: 강화군



칠면초군락지

민머루해수욕장 가는 길 중간 즈음 펼쳐진 칠면초군락지는 갯벌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서해안에 자생하고 있으며, 계절마다 색이 달라져 칠면초라는 이름이 붙었다.

난정저수지

교동평야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조성된 난정저수지는 매년 9월이면 '난정해바라기정원 축제'가 열리며 늦가을부터는 붐머가 잘 잡히는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교동도 추천코스

인구수 약 2,816명 면적 47.15km² 접근성 교동대교



석모도 · 교동도 시티투어



이용안내

운행시간 매주 1회(금) 약8시간 소요(09:30~17:30)
탑승장소 인천종합관광안내소(센트럴파크역)
출발시간 10분 전까지 탑승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성인	소인 경로, 인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15,000	12,000	10,000

※ 5세미만 무료(1인 가정당),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동반할인
※ 소인(5세~고등학생), 경로(65세 이상)
※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강화 선수산착장에서 갈 수 있는 세 섬은 느리게 쉬어가기 좋은 섬들이다. 평화로운 자연과 친근한 주민들이 반겨준다.

주문도

인구수 약 369명 면적 4.55km²

접근성

| 약 1시간20분 소요 노선

선수산착장-주문도(느리)-아차도-볼음도

| 약 40분 소요 노선

선수산착장-주문도(살곶이)

주문도 추천코스



서도중앙교회

전통 한옥과 서양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서도중앙교회는 인천문화재 제14호다.



5월이면 앞장술해변길 따라 해당화가 무리 지어 핀다.



볼음도

인구수 약 273명 면적 6.58km²

접근성

| 약 1시간20분 소요 노선

선수산착장-주문도(느리)-아차도-볼음도

볼음도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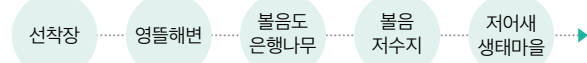
800살이 넘는 볼음도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04호로, 높이 25m의 웅장한 볼음도 만의 랜드마크다.

볼음도 갯벌

세계 3대 갯벌인 강화갯벌로 천연기념물 제419호다. 이곳에서는 상합을 채취할 수 있다. 흔히 백합이라고 하는데, 조개 중에 최고에 속한다. * 갯벌체험 : 4~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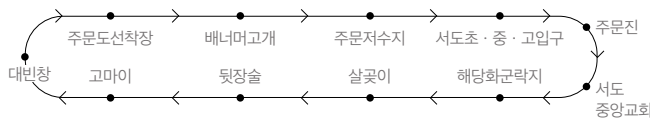


볼음도 추천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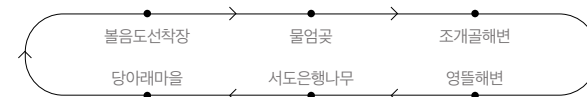


아름다운 해변 따라 사뿐사뿐 걸으며 누리는 진정한 힐링

강화나들길 제12코스 | 총거리 11.3Km, 3시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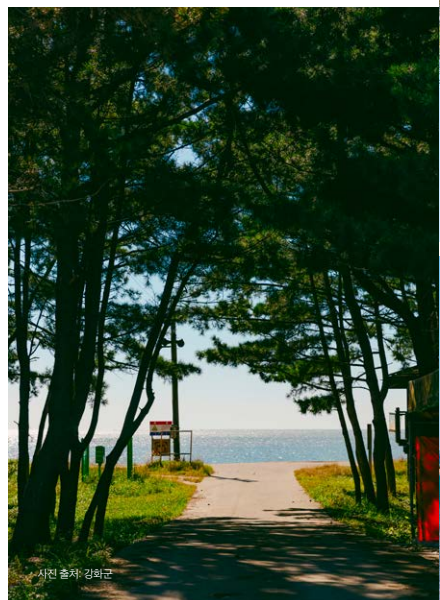


강화나들길 제13코스 | 총 거리 13.6Km, 4시간 소요



대빈창해변

주문도에서 가장 큰 해변으로, 그 길이는 약 1.5km에 달한다.



아차도

‘소도’ 라고도 불리는 아차도의 지명은, 육지와 바다에서 각각 천년을 보낸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다가 임신한 여자를 보고 ‘아차’ 하는 순간 바다에 떨어졌다는 재밌는 전설로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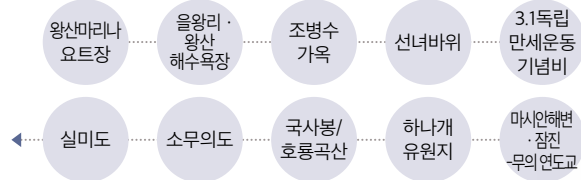
그 외 강화의 섬들

: 황산도 / 동검도 / 미법도 / 서검도 / 말도

무의도, 영종용유도

인천공항이 있는 국제도시이자 종합해양관광·휴양도시이다.
연도교로 무의도와 소무의도로의 여행 뿐만 아니라
실미도, 팔미도 등 주변 섬들도 매력적이다.

무의도, 영종용유도 추천코스



영종용유도

인구수 약 111,975명 면적 115.44km² 접근성 인천대교

마시안해변

영종하늘도시의 랜드마크로, 인천 앞바다를 끼고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으며, 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이 구성되어 있다.



왕산마리나요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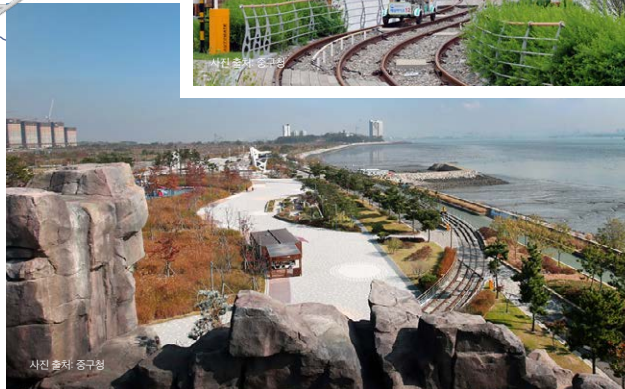
요트 300척을 정박할 수 있고 365일 입·출항이 가능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요트장이다.

마시안해변

긴 해변의 모래사장과 소나무의 조화가 아름다워 용유8경 중 제4경 명사십리에
꼽힌다. 갯벌체험장이 있어 조개 캐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산림휴양과 해양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심권 내 휴양
시설로, 2022년 개방되었다.



무의도

인구수 약 710명 면적 10.12km² 접근성 인천대교

하나개해수욕장

무의도에서 가장 큰 갯벌이라는 뜻의 하나개해수욕장은
1km 길이의 해변에 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모래가 깔려 있다.



호룡곡산

많은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섬 중앙에 있는 국사봉과 함께
황해의 알프스라 불린다.



소무의도

인구수 약 78명 면적 0.17km² 접근성 인천대교



몽여해수욕장

250m로 아담한 규모인 몽여해수욕장은 모래와 하얀 굴껍데기, 몽돌로
이뤄진 해변이다. 소무의도 일대는 우럭, 농어, 놀래미 등이 많이 잡히는
낚시꾼들의 숨겨진 포인트다.



실미도

1960년대 중앙정보부가 창설한 북파공작원들이 지옥훈련을 했다는
섬이자,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실미도'의 실제 촬영지다.



팔미도

팔미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다. 팔미도 등대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상륙함대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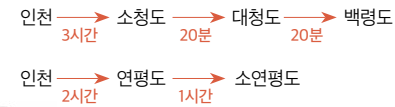
서해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리나라 국토 최서북단을 지키는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은 지리적·생태학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중요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간직한 곳이다. 대규모 모래해안과 해식애 같은 지형 경관에서부터 지질적 가치가 높은 현무암 분포지가 있으며, 서해안에서 유일한 해양 포유류인 백령 정박이 물범의 최남방 서식지다.

백령도 인구수 약 4,942명 면적 51.09km²



서해5도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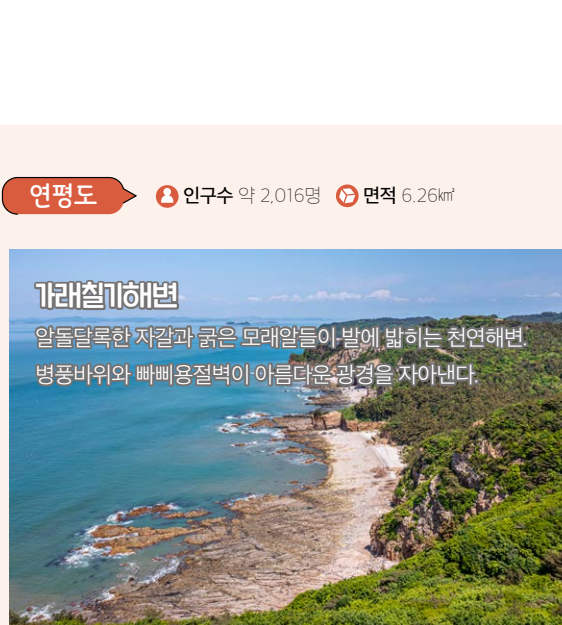
콩돌 해변(천연기념물 제 392호)

콩알을 뿌려 놓은 듯한 독특한 해변으로 2km 걸쳐 콩처럼 둥글둥글한 돌멩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무진(명승 8호)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릴 만큼 웅장미가 아름다운 두무진. 특히 노을이 지면 드러나는 실루엣이 장관이다.



대청도

인구수 약 1,209명 면적 12.66km²

소청도

인구수 약 216명 면적 2.94km²



옥죽해안사구

'한국의 사하라'라고 불리는 모래사막. 자연이 만들어 놓은 신비한 현상이다.



소청도 하양구



분바위(스트로마톨라이트)

달빛에 하얗게 띠를 두른 듯해 '월띠' 라고도 불리며, 그믐밤 들어오는 배들의 방향잡이 역할도 한다.



사진 출처: 웅진군

연평도

인구수 약 2,016명 면적 6.26km²

가래칠기해변

알돌달룩한 자갈과 굵은 모래알들이 발에 밟히는 천연해변. 병풍바위와 빼빼용절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다.



소연평도

인구수 약 113명 면적 1.01km²

평화공원

연평 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조국의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 숭고한 희생에 숙연해지는 곳.



소연평도

연평도 옆 자그마하고 고요한 섬 하나. 소수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사진 출처: 웅진군

안보교육장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포격전의 아픔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간으로 당시 피폭 된 가옥 3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연평도 특산물 '꽃게'

연평도 어미들의 주업인 꽃게는 매년 4월 초순부터 6월 하순, 9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잡으며 씨알이 굵고 맛이 좋아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덕적군도

유인 섬 8개, 무인 섬 3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덕적군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관광개발의 적지이며, 자연해변 4개소와 쾌적한 무공해 해안가가 있어, 해수욕과 함께 갯바위 낚시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다.

덕적면  인구수 약 1,208명  면적 34.84km²

덕적도 추천코스

3.1운동 기념비 → 충훈탑 → 밧지름 해변 → 서포리해변 → 능동 자갈마당 → 쑥개해안 → 국사봉 구름다리 → 밧개 저수지 →



능동자갈마당

크고 작은 고운자갈로 이뤄진 해변으로, 주변의 기암괴석과 서해 최대 규모의 갈대군락지와 함께 어우러져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소야도(대부루해변)

소야도 해안에서는 꽃게, 소라, 조개, 배꼽고둥 등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영화 '연애소설'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진 출처: 웅진군



사진 출처: 웅진군

문갑도

경사가 완만한 백사장과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일품인 섬. 문갑도에서 잡히는 새우가 유명하다.



사진 출처: 웅진군

서포리해수욕장

경사가 완만한 30만평의 넓은 백사장에 200년이 넘은 울창한 해송 숲과 해당화가 한데 어우러진 천혜의 휴양지.



개머리언덕

사진 출처: 웅진군



굴업도

트레킹과 캠핑 성지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굴업도. 야생 꽃사슴도 관측할 수 있다.



접근성

인천연안부두 : 쾌속선(1시간 10분 소요), 차도선(2시간 소요)
대부방아머리 : 차도선(1시간 50분 소요)
고령고속웨리(주) : 쾌속선 (주)대부해운 : 차도선
나래호 : 차도(문갑, 굴업, 백아, 울도, 지도) 운항



외곽도 가는 방법

덕적도 진리 선착장에서 외곽섬을 왕복 운행하는 나래호 환승 [나래호 관련 문의] 032-887-6669



사진 출처: 웅진군

지도

지도(池島)라는 지명은 섬 중앙에 연못이 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사진 출처: 웅진군



사진 출처: 웅진군

울도

섬 주민들의 착하고 순진한 마음에 감동되어 떠날 때 울게 된다 하여 울섬이라 불린다는 속설이 있다.

백아도

섬의 형태가 흰 상어의 이빨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백아도'. 한국 특산식물인 섬소사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자월’(붉은 달)이란 이름의 뜻 처럼 석양이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섬 자월도.

이일레해수욕장

자월면 대표 해변 중 하나. 자연발생 해변으로 백사장의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도 낮아 피서철 휴양지로 인기만점.



사진 출처: 용진군



남대문바위

사진 출처: 용진군



부채바위

사진 출처: 용진군



풀등

사진 출처: 용진군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이 펼쳐진 자월면의 섬들. 서해에서 가장 맑은 바다를 자랑하며, 갯벌체험, 산림이 우거진 산책로 등 매년 많은 관광객들과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섬들이다.



자월도 인구수 약 702명 면적 7.12km²



목섬 구름다리

목섬 구름다리

자월도가 품은 작은 섬. 목섬은 아트막한 동산을 올라 목섬 정자각에서 시작된다. 구름다리는 만조 시 바다 위를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장골해수욕장

고운 모래 백사장이 인상적인 해변 입구에는 수십 년 된 아카시아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암벽 사이로 흐르는 생수를 맞볼 수 있다. 오른쪽에 위치한 독바위는 썰물 때만 건널 수 있다.



승봉도 인구수 약 233명 면적 6.39km²

승봉도 괴암

특이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많이 있는 승봉도. 파도에 깎이고 비바람에 씻겨 형성된 모양들이 제각각 개성을 갖는다.

대이작도 인구수 약 278명 면적 2.59km²

소이작도 인구수 약 107명 면적 1.41km²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해적마을이라고 불리는 이 섬들은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섬 그 자체가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하루 딱 2번만 관측할 수 있는 바다 위의 모래섬인 풀등은 바람이 나르고 시간이 빚어낸 자연의 거대한 조화다.



대이작도는 그 시절 '섬마을 선생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손가락바위

검지 손가락처럼 바위로 한가지의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스토리가 있다.



무지개선착장

해안도로를 따라 늘어진 알록달록 방파제는 여행자들에게 인기있는 포토스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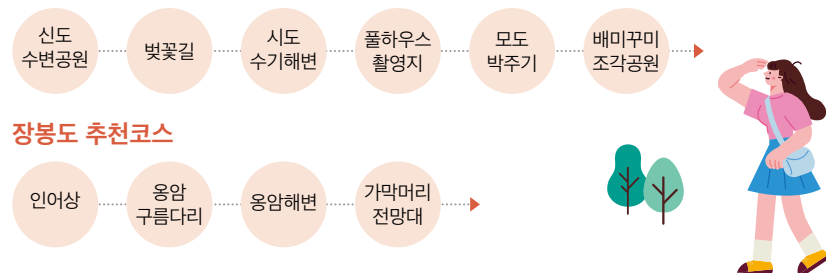
<용진의 섬>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17

신 · 시 · 모도, 장봉도

세개의 섬이 삼형제처럼 연결되어 있는 신·시·모도와 매년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섬 장봉도가 있는 북도면. 지리적으로 육지와 가까워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섬 여행 추천지.

신도	인구수 약 659명	면적 7.16km ²	모도	인구수 약 117명	면적 0.76km ²
시도	인구수 약 372명	면적 2.55km ²	장봉도	인구수 약 977명	면적 7.15km ²
접근성 삼목선착장에서 매일 1시간 간격으로 선박 운행					

신시모도 추천코스



장봉도 추천코스



신도 선착장 수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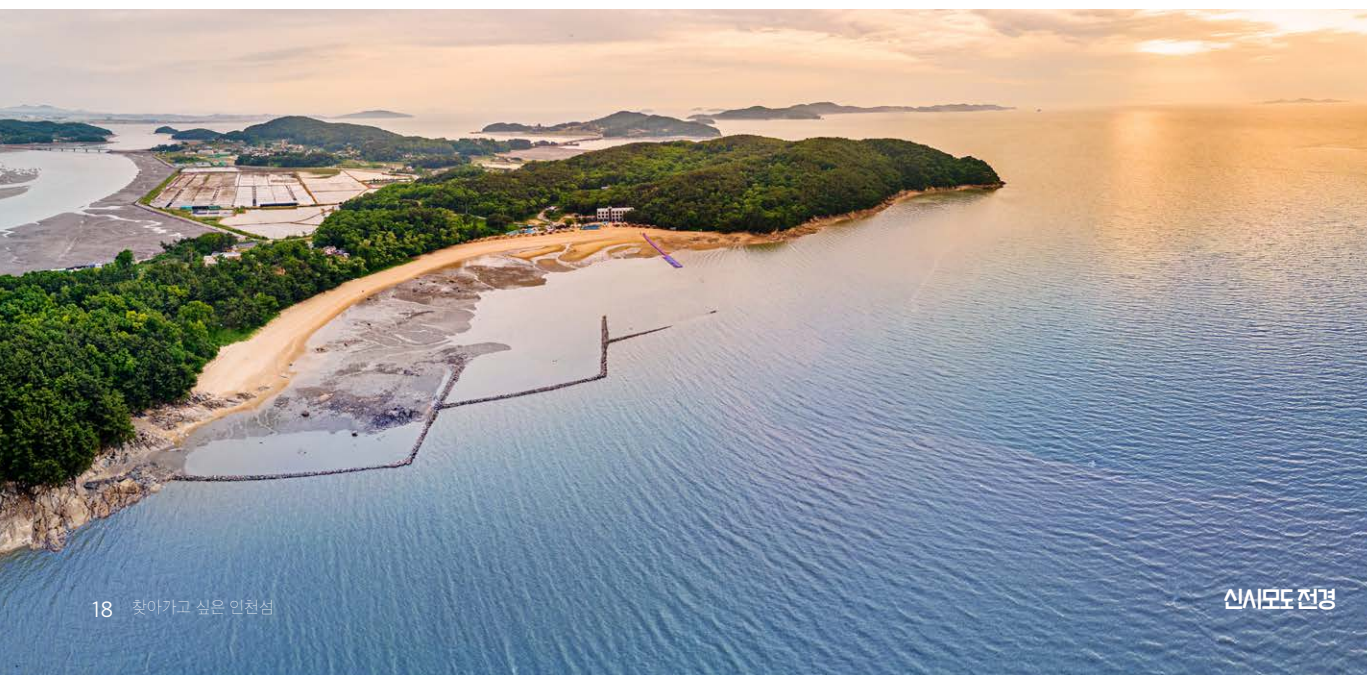
장봉도 해식동굴



모도 배미꾸미 조각공원



장봉도 가막머리전망대



신시모도 전경

영흥도, 선재도, 측도

도심에서 차로 한 시간 남짓 걸려 도착할 수 있는 영흥면의 섬들. 다양한 체험시설과 시원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나는 포도와 바지락의 맛은 일품이다.

영흥면

인구수

약 6,595명

면적

26.35km²

접근성

시외버스 이용시 : 790번

자가용 이용시

: 선재대교/영흥대교



십리포해수욕장
서어나무 군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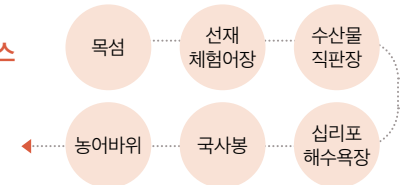


영암체험어장

영흥도·선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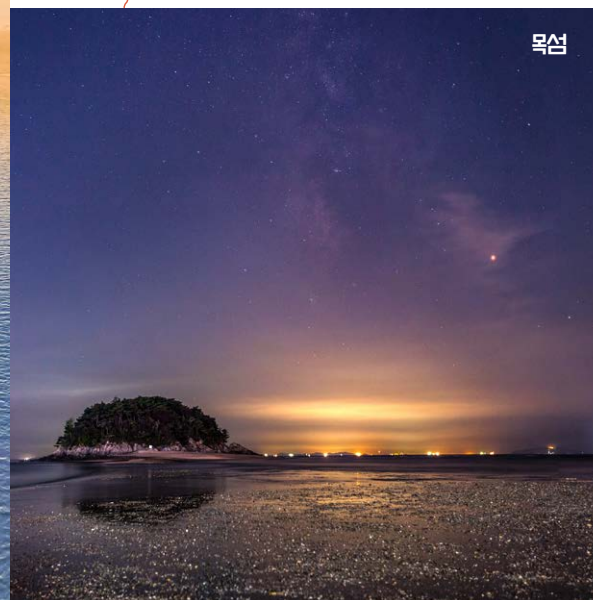
2001년 개통된 영흥대교를 통해 수도권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 영흥도는 여름철 최고 인기 피서지로 꼽힌다. 드넓은 해수욕장, 다양한 체험학습관, 맛있는 먹거리 3박자가 딱 떨어지는 섬.

영흥면 추천코스



목섬과 측도

선재도에는 썰물 때에만 왕래가 가능한 두 개의 형제섬이 있다. 그 중 목섬은 CNN이 뽑은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곳 중 1위를 한 섬이다. 특히 목섬의 겨울 설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선재도 서쪽으로는 측도가 있다. 바다가 열어주는 길을 왕래하는 일은 특별하고도 신비한 경험이다.



목섬



측도



세어도

서구의 유일한 섬인 세어도는 육지와 단 1km 떨어져 있는 도심 속 작은 힐링 섬이다. 서해 낙조와 갯벌, 섬에서 보이는 도시 불빛 야경이 섬 특유의 아련함을 느끼게 한다.

세어도

인구수 약 44명
 면적 0.41km²
 접근성 정서진호 10분 소요(행정선 사전예약)



세어나루쉼터

저 멀리 도심이 보이는 쉼터로 계절별로 다양한 야생화가 피기도 한다.



사진 출처: 서구청



갯골정원

갯벌을 따라 물줄기가 흐르는 골짜기로, 쉬이 볼 수 없는 자연현상. 세어도는 섬 전체가 갯골 공원 이기도 하다.



관광안내 연락체계

강화군		
강화군	원도심 관광안내소	032-932-2302
	강화터미널 관광안내소	032-930-3515
	마니산관광안내소	032-934-5565
	교동제비집(웰컴센터)	032-934-1000
삼산면	삼산파출소	032-930-0312
서도면	서도면사무소	032-930-4326
	서도파출소	032-932-7112
	서도우체국	032-932-7300
	서도보건지소	032-932-7008
	불음진료소	032-932-7014
	삼도농협주문지소	032-932-7539
	삼도농협불음지소	032-932-7518
	불음도 저어새생태마을	032-932-4591

중구	
소무의도 스토리움	032-751-8393
씨사이드파크	032-456-2975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1588-3250

옹진군		
옹진군	옹진군 관광문화진흥과	032-899- 2211~4
백령면	백령면사무소	032-899-3510
	백령파출소	032-760-8316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032-836-1731
	백령보건지소	032-899-3322
	백령119안전센터	032-836-0119
	해경 백령출장소	032-650-2339
영흥면	영흥면사무소	032-886-7800
	영흥보건지소	032-899-3187
	영흥파출소	032-760-8311
	영흥119안전센터	032-882-3119
	선재보건지소	032-899-4769

옹진군		
대청면	대청면사무소	032-899-3611~7
	대청면 소청출장소	032-836-3301, 032-899-3409
연평면	연평면사무소	032-899-3450
	연평 평화안보 수련원&안보교육장	032-899-2552~4
자월면	자월면사무소	032-899-3752~9
	자월면 이작출장소	032-899-3591~2
	자월면 승봉도행정지원센터	032-719-6441
	해양생태관	032-851-8881
	자월보건소	032-899-3186
	대이작 진료소	032-858-3553
	소이작 진료소	032-832-3695
	승봉 진료소	032-832-7601
	자월 치안센터	032-760-8167
	대이작 치안센터	032-760-8168
북도면	소이작 치안센터	032-760-8169
	승봉치안센터	032-760-8170
	전기차 대여	010-2501-5133
	북도면사무소	032-899-3410
	장봉치안센터	032-760-8166
	장봉출장소	032-899-3408
	북도보건지소	032-899-3181
	해경 장봉출장소	032-650-2133
	장봉보건지소	032-899-3391
	북도119	032-752-3119
덕적면	북도파출소	032-760-8312
	장봉119	032-752-2119
	덕적면사무소	032-899-3711~6

인천 섬 가는 방법

강화군



강화버스터미널 하차

서울 88(영등포), 3000(신촌), 60-5(김포공항)
인천 70(청라), 90(부평역),
 아시아드주경기장(700-1번),
 인천문학경기장(800번)
경기 96(일산)

삼산면 방면 버스 환승

군내버스 31A, 31B, 35A, 35B, 39A
 강화터미널↔보문사
 (첫차 06:30, 막차 20:40)
삼산마을버스 905-1, 905-2, 906-1, 906-2



선수선착장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
하리선착장 미법도, 서검도
문의전화 032-932-6007(삼보해운)

중구



- 동인천역(우리은행앞) ▶ 중구6번 버스 승차 ▶
 무의도 주민자치센터 정류장 하차
- 동인천역북광장 ▶ 306번 승차 ▶ 무의도입구 정류장
 하차 후 거점포 정류장 중구6 중구6-1번 버스 환승 ▶
 무의도 주민자치센터 정류장 하차
- 인천국제공항(3층 GATE7) ▶ 222, 111, 306번 버스 승차 ▶
 거점포선착장 하차 후 중구6 중구6-1번 버스 환승 ▶
 무의도 주민자치센터 정류장 하차

서구



정서진호 예약 사이트

* 2022년 운행 중단(23년 재개 예정)

무의도 시티투어



시티투어 예약
 바로가기

인천종합관광안내소/
 인천역

하나개
 해수욕장

광명항

소무의도

인천종합관광안내소/
 인천역

이용안내

운행시간 매주 1회(목)약8시간 소요(09:30~17:30)
탑승장소 인천종합관광안내소(센트럴파크 3번출구) / 인천역
 ※ 출발 10분 전까지 탑승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1899-0960

예매 시 지정된 탑승장소에서만 탑승 가능합니다. 탑승장소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요금

성인	소인, 경로, 인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10,000	8,000	6,000

※ 5세미만 무료(1인 가정당),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동반할인
 ※ 소인(5세~고등학생), 경로(65세 이상)
 ※ 단체(10인이상)20%할인

옹진군



배편

도착지	선착장	주소
북도면 (신도, 장봉도)	삼목 여객터미널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847번길 63 307번, 204번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로 1567-2 일반 123, 직행300, 광역790
자월면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연평면 (대연평면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인천 중구 연안부도로 70 간선12, 간선24
대청면 (소청도, 대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자월면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영흥도



790번 (평일21회, 주말15회)

수현마을 ▶ 만수소방서 ▶ 예술회관역 ▶ 방죽삼거리 ▶ 오이도역 ▶ 국궁장앞 ▶ 백사장회센터 ▶ 대부파출소앞 ▶
 큰산너머입구 ▶ 영흥도



서울, 부천, 인천출발

제2경인고속도로 ▶ 서창IC ▶ 서해안고속도로 ▶ 정왕IC ▶ 좌회전(직진) ▶ 시화방조제 ▶ 대부도 ▶ 영흥 · 선재방면 ▶
 선재대교 ▶ 선재도 ▶ 영흥대교 ▶ 영흥도

발행일 2023년 7월 29일
발행처 인천광역시
기획 인천섬발전지원센터
디자인 ㈜해성디자인

본 발행물의 모든 저작권은 인천섬발전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허가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구수는 2023년 4월 기준 | 선박 및 교통정보는 선사사정에 따라 매월 달라질 수 있음. | 반드시 출발 전 선사 홈페이지 및 전화 확인 | 선박 예약은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

여객선예매



"가보고 싶은 섬"
 사이트 바로가기



인천섬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소식지 구독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카카오톡채널

☎ 인천항여객상담 1599-5985
 ☎ 세종해운 032-751-2211
 ☎ 고려고속훼리 1577-2891
 ☎ 대부해운 032-887-0602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인천 섬에 대한 연구 · 조사 및 다방면의
 사업지원을 통해 섬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조사 ·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 지원 및 컨설팅



관련 주체 역량 강화



네트워킹 및 중개

